

한국 Metabolic Disorders(대사질환) 치료영역 파이프라인 분석

이민주 연구원
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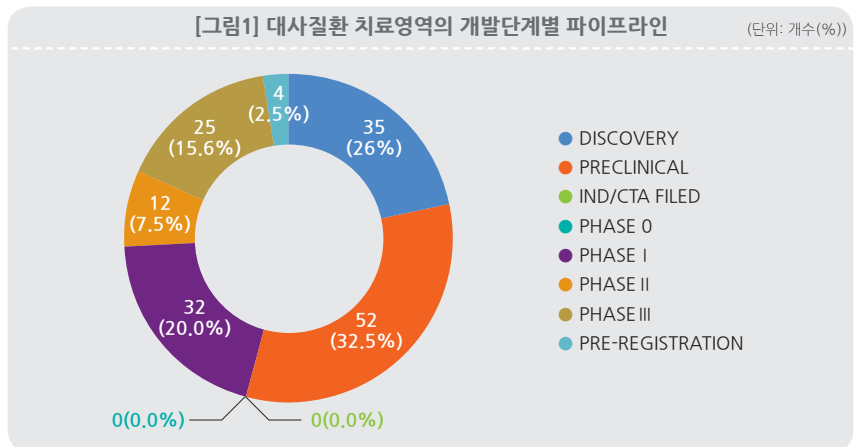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데이터 2018년 8월 23일 기준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, 기관, 대학, 정부 등에서 개발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의 Top 10 치료영역은 Oncology(종양), Metabolic Disorders(대사질환), Central Nervous System(중추신경), Infectious Disease(감염질환), Immunology(면역), Cardiovascular(심혈관), Gastrointestinal(위장), Ophthalmology(안과), Respiratory(호흡기), Dermatology(피부과) 순으로 나타남



대사질환 치료영역의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개수

- 한국에 본사를 둔 76개의 기업, 기관, 대학 등에서 총 159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됨

+ 개발단계별 파이프라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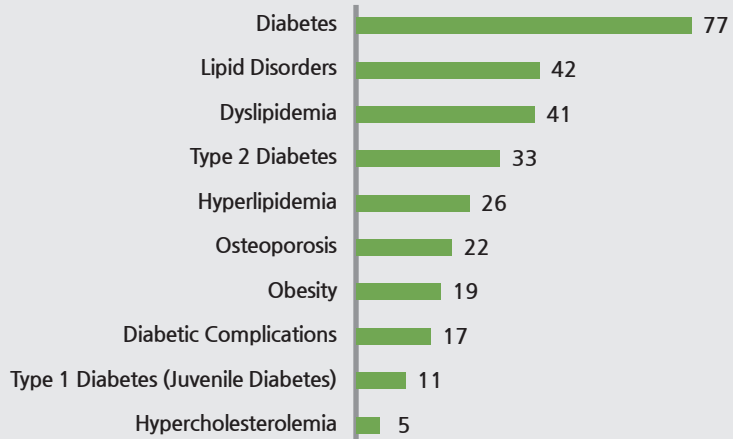


- 국내 대사질환 치료영역의 파이프라인을 개발단계별로 보면 Preclinical(전임상) 단계가 52개(32.5%)로 가장 많았으며, Discovery(후보물질발굴) 단계와 Phase I (임상1상) 단계가 각각 35개(21.9%), 32개(20.0%)로 집계됨

※ 파이프라인의 적응증(Indication)이 다를 경우, 각각 1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집계한 것임

+ Top 10 Indications By Drugs

[그림2] 대사질환 치료영역 파이프라인 Top 10 Indications (단위: 개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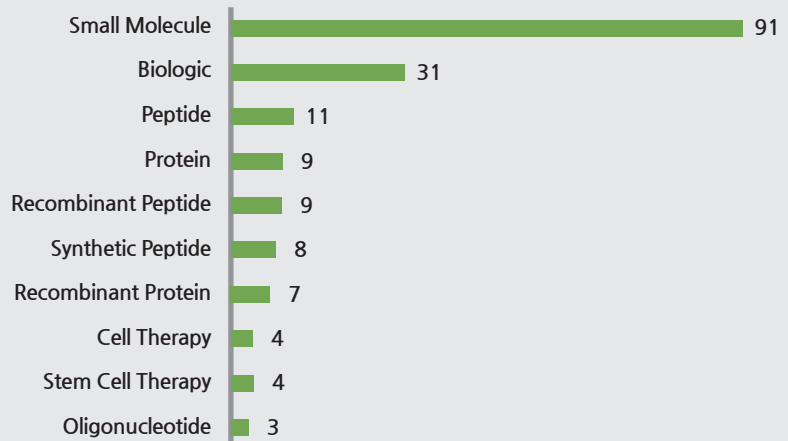


- 국내 대사질환 치료영역의 파이프라인을 적응증 별로 보면, Diabetes(당뇨병)가 77개로 가장 많았으며, Lipid Disorders(지질 장애)와 Dyslipidemia(이상지질혈증)가 각각 42개, 41개 순으로 집계됨

※ 1개의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의 적응증일 경우, 각각 1개로 중복 집계한 것임

+ Top 10 Molecule Types By Drug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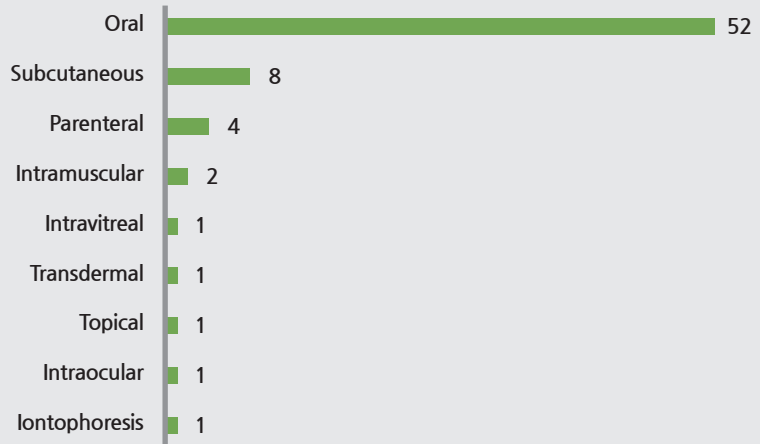
[그림3] 대사질환 치료영역 파이프라인 Top 10 Molecule Types (단위: 개수)



- 국내 대사질환 치료영역의 파이프라인을 Molecule Types 별로 보면, Small Molecule이 91개로 가장 많았으며, Biologic과 Peptide, Protein이 각각 31개, 11개, 9개 순으로 집계됨

Top 10 Routes of Administration By Drugs

[그림4] 대사질환 치료영역 파이프라인 Top 10 Routes of Administration (단위: 개수)



- 국내 대사질환 치료영역 파이프라인의 투약경로는 구강(Oral)이 52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피하(Subcutaneous)와 비경구(Parenteral)가 각각 8개, 4개 순으로 집계됨

+ 대사질환 파이프라인 보유 Top 10 Entity

No	Entity	Development Stages								Total
		Discovery	Preclinical	IND/CTA Field	Phase0	Phase I	Phase II	Phase III	Pre-Registration	
1	Hanmi Pharmaceuticals Co Ltd	-	2	-	-	6	1	-	-	9
2	Chong Kun Dang Pharmaceutical Corp	-	1	-	-	1	2	4	-	8
	Yuhan Corp	1	1	-	-	2	-	4	-	8
4	Kuhnii Pharmaceutical Co Ltd	1	-	-	-	3	1	1	1	7
5	Boryung Pharmaceutical Co Ltd	1	1	-	-	1	-	3	-	6
6	Jeil Pharmaceutical Co Ltd	1	2	-	-	-	-	2	-	5
	Daewon Pharm Co Ltd	1	-	-	-	2	-	2	-	5
	CJ HealthCare Corp	2	-	-	-	-	-	1	2	5
9	Hyundai Pharmaceutical Co Ltd	2	1	-	-	1	-	-	-	4
	Peptron Inc	1	2	-	-	-	1	-	-	4
	LG Chem Ltd	2	2	-	-	-	-	-	-	4
	Medy-Tox Inc	2	2	-	-	-	-	-	-	4

-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9개로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종근당과 유한양행이 8개, 건일제약이 7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
- Top 10 Entity가 보유한 69개의 파이프라인을 개발단계별로 살펴보면, Phase III(임상3상) 단계의 파이프라인이 17개로 가장 많았으며, Phase I (임상1상) 단계가 16개, Discovery(후보물질발견) 단계와 Preclinical(전임상) 단계가 각각 14개로 나타남

※ 본 Brief는 글로벌데이터(Global Data) 2018년 8월 23일 기준으로 검색된 자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임

저자소개

이민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연구원
 전화 : 031-628-0041
 e-mail : mjlee@koreabio.org

BIO ECONOMY BRIEF

발행 | 2018년 12월
발행인 | 서경선
발행처 |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
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
 (삼평동, 코리아바이오파크) C동 1층
 www.koreabio.or.kr